

## 문상필 16.6%·신수정 14.5% 김동찬 9.4% 오차범위 맹추격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흔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북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장 선거 다자대결 지지도에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6.6%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14.5%로 뒤를 이었고,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9.4%를 기록했다.

이어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8.2%), 솔승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7.1%), 김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6.1%), 정다은 광주시의원(5.2%),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4.4%),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3.3%), 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2.9%), 오주식 전 광주은행신협 이사장(1.4%) 순이었다.

특히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격차는 2.1%로, 오차범위 ( $\pm 4.4\%$ ) 내에서 있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운 접전 구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 북구청장 선거 다자대결 지지도는 남성의 경우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지지도가 16.3%로 가장 앞섰다. 이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15.3%), 김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8.9%)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16.9%),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13.8%),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11.4%),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8.5%), 솔승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6.7%) 순이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에도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8세 이상과 20대, 30대를 제외한 전 구간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조호권 8.2%·송승종 7.1%…선거구별 지지 엇갈려

민주 후보 적합도 양상도 비슷…문인 3선 도전 변수

얻었다. 18세 이상 20대에서는 김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이 17.8%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9.5%를 기록하며 가장 앞섰다. 지역별로는 갑선구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9.5%로 가장 앞섰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16.1%),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6.7%),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7.8%)가 뒤를 이었다.

을 선거구에서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6.1%로 선두를 달렸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0.6%로 동률을 이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된 구도라기보다 상위권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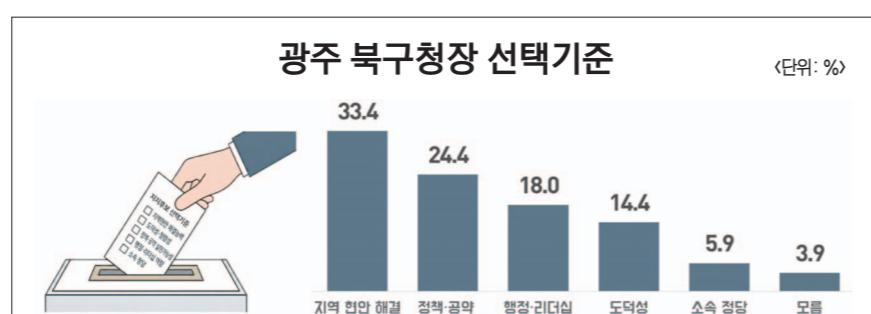
변수는 문인 현 북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고심했던 문 구청장이었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속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광주시당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구청장 선거구이니 유동질 가능성이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북구민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최우선

33.4%…정책·공약 실현도 중요 행정 역량·도덕성도 판단 기준



광주 북구 유권자들은 차기 구청장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북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장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3.4%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24.4%), 행정·리더십 역량(18.0%), 도덕성·청렴성(14.4%) 순이었다. 소속 정당은 5.9%, 모름 또는 기타 응답은 3.9%였다.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후보자의 잣대로 삼겠다고 답했다. 30대에서는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18.1%), 도덕성·청렴성(12.8%) 순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 능력(31.9%)을 1순위로 꼽았다.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24.9%), 행정·리더십 역량(18.0%), 도덕성·청렴성(16.1%), 소속 정당(6.3%) 순이었다. 여성 응답자도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산화 기자

## 강성휘 30.5% ‘유리한 고지’ 전경선·박홍률 각축전 치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목포시 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크게 앞서며, 선거 일을 넉넉히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접하게 됐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강성휘 부의장이 30.5%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20.7%로 선두와 9.8%p 차로 추격하고 있으며,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15.2%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10.0%, 윤선웅 국민의힘 목포시당 당협 위원장 5.2%, 박용안 조국혁신당 목포시 지역위원장 4.7%, 어인숙 여인당 2.4%



강성휘, 세대·계층·권역별 고른 지지로 격차 벌려

이호균 10%…지지후보 없는 부동층 10.1% 변수

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강 부의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35.6%를 기록했고, 국민당 지지층에서 21.8%와 29.5%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 할 수 있는 ‘없음/모름’이 21.8%와 29.5%를 각각 기록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민주당 26.6%, 국민당 10.1%, 조국혁신당 0.0%, 진보당 30.3%, 개혁신당 0.0%, 기타 정당 8.5%로 1위를 기록한 반면, 1권역에서는 전경선 10.0%로 2위에 올랐다.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30% 이상인 35.6%와 35.3%의 강 부의장이 전경선 23.6%, 진보당 9.8%, 개혁신당 10.9%p 차이로 3위에 올랐다.

민주당 후보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강성휘 39.0%, 전경선 30.0%, 이호균 14.2% 순으로 1~2위에 걸친다.

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 강 부의장은 35.5%를 기록해 24.6%로 2위에 오른 전경선 30.0%로 1위를 기록했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이 31.7%, 여성 29.4%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 부의장을 더 지지했다. 전경선 도의원은 남성 19.5%, 여성 21.9%를 기록했고, 박홍률 전 시장은 남성 17.6%, 여성 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권역 27.6%, 2권역 32.7%, 3권역 30.9%로 모든 지역에서 강 부의장이 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 지지도에서는 강 부의장이 민주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지지층 중 50대 36.2%, 60대 42.5%, 70대 이상 35.9%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강성휘 39.0%, 전경선 30.0%, 이호균 14.2% 순으로 1~2위에 걸친다.

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 강 부의장은 35.5%를 기록해 24.6%로 2위에 오른 전경선 30.0%로 1위를 기록했다.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30% 이상인 35.6%와 35.3%의 강 부의장이 전경선 23.6%, 진보당 9.8%, 개혁신당 10.9%p 차이로 3위에 올랐다.

민주당 후보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강성휘 39.0%, 전경선 30.0%, 이호균 14.2% 순으로 1~2위에 걸친다.

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 강 부의장은 35.5%를 기록해 24.6%로 2위에 오른 전경선 30.0%로 1위를 기록했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이 31.7%, 여성 29.4%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 부의장을 더 지지했다. 전경선 도의원은 남성 19.5%, 여성 21.9%를 기록했고, 박홍률 전 시장은 남성 17.6%, 여성 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권역 27.6%, 2권역 32.7%, 3권역 30.9%로 모든 지역에서 강 부의장이 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 지지도에서는 강 부의장이 민주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지지층 중 50대 36.2%, 60대 42.5%, 70대 이상 35.9%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강성휘 39.0%, 전경선 30.0%, 이호균 14.2% 순으로 1~2위에 걸친다.

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 강 부의장은 35.5%를 기록해 24.6%로 2위에 오른 전경선 30.0%로 1위를 기록했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이 31.7%, 여성 29.4%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 부의장을 더 지지했다. 전경선 도의원은 남성 19.5%, 여성 21.9%를 기록했고, 박홍률 전 시장은 남성 17.6%, 여성 12.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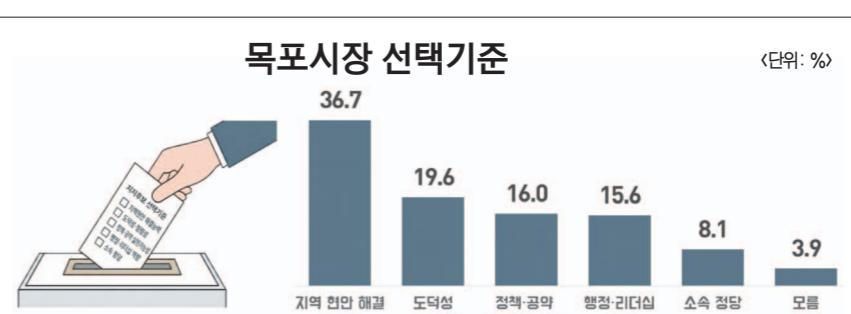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1권역 27.6%, 2권역 32.7%, 3권역 30.9%로 모든 지역에서 강 부의장이 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 지지도에서는 강 부의장이 민주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지지층 중 50대 36.2%, 60대 42.5%, 70대 이상 35.9%를 기록했다.

## 목포시민 36.7% “현안 해결 능력 가장 중요”

도덕성·청렴성 19.6% 2위

정책·공약 실천 등도 필요



6·3 지방선거에서 차기 목포시장을 선출할 목포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